

로컬스토리

육구농민항일항쟁 기념행사 개최

제89주년 육구농민 항일항쟁 기념행사가 내일 4일 오전 11시 임피중학교 교정 내 기념비 유적지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농장 지주의 과도한 소작료 요구 등에 맞서 싸운 육구농민 항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육구농민항일항쟁기념사업회가 주관한다.

행사는 성서면 고삼개농악단의 풍물과 민요, 한량무 등 공연에 이어 육구농민 선열들의 넋을 기리는 묵념과 헌화, 경과보고, 축사, 애국지사 소개, 후손대표 인사 등 순서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군산문화원은 어린이들에게 육구농민항일항쟁의 뜻 깊은 의미를 심어 주고자 군산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태극기 및 무궁화 그리기 공모를 한다.

작품 모집 기간은 11월 7일부터 24일까지이고 주제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 및 무궁화이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여성한마음대회 31일 개최

군산시여성단체협의회가 오는 31일 오후 1시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2016 군산시 여성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으로 라인댄스와 노래교실을 시작으로, 1부에는 지역발전과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한 여성유공자 표창 및 기념식과 2부에는 어울림마당 행사 및 군산골든벨을 진행한다.

송미숙 군산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군산시 여성 여러분이 군산의 문화·역사 등 시정에 대하여 더 많이 알게 돼 정체성과 자긍심 고취와 더욱 화합하고 결속을 다져 여성의 역량확산과 사회적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내일 군산시 생명사랑 걷기대회

제6회 군산시 생명사랑 걷기대회 행사가 내일 오후 1시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 광장에서 열린다.

군산시보건소가 주최하고 군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주제로 생명사랑의 소중함을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실시된다.

난타공연으로 막을 올리는 이날 축제는 도내 유관기관들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 우울·스트레스 검사, 혈압·당뇨 검사, 미술체험 페이스페인팅, 비빔밥 만들기, 나만의 거울 만들기, 생명사랑 타투 새기기 등을 진행한다.

또한 생명사랑 포토존, 희망메시지, 정신건강 인스업 퀴즈, 생명사랑 인증샷 등 삶의 소중함을 직접 깨닫게 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 평화통일 범진시스템 저소득층 세대에 고구마 기탁

익산시 평화통일 소재한 범진시스템(대표 김홍순)은 관내 저소득층 세대에 게 전달해달라며 27일 고구마 10kg 104상자를 평화통일민선센터에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한 고구마는 김홍순 대표가 직접 심고 수확한 농작물로 김 대표의 땀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의미 있고 따뜻한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관내 저소득층 세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웃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눔으로 함께하는 이웃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양규 평화통일장은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사랑의 뜻을 전해준 범진시스템에 감사드립니다"며 "이웃을 향한 관심과 사랑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익산=장왕원기자



정현을 익산시장이

국가예산·지역현안 해결 총력

주요사업 증액협조·산재한 지역현안 대한 적극적 지원 요청

정현을 익산시장이 국가예산 확보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정 시장은 27일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2017년도 국가예산 주요사업 증액협조와 산재한 지역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2017년도 예산안 국회 상임위, 예결위 예산심사에서 지역현안사업 추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대응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방문을 추진했다.

시의 주요 현안사업인 익산열린산업단지입도로 개설공사, 익산폴리텍V

대학 캠퍼스 관련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문제 등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의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익산열린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는 익산시 하나로(일본산업단지)에서 충남 연무C까지 총연장 11.9km, 폭20m 규모로 연결되는 국가보조 사업으로 2010년부터 총사업비 1,604억원을 투자하여 2017년까지 추진된다.

지난 2012년에 착공하여 2016년까지 국비 800여원을 지원받아 총 953여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시비 50여원을 어렵게 확보하여 5차분 준공을 완료했으나 아직도 확보하지 못한 지방비 661여원의 부담이

과중해 중앙에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시장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정부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지역 국회의원, 인맥 네트워크 등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며 "내년도 국가예산이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현재 정부예산은 지난 24일부터 국회 상임위 예산심사가 진행 중이며, 예결위는 정책질의 등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7일부터 소위원회 심사가 진행되고 12월 2일 확정될 예정이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시,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호응'

도시민 대상 귀농귀촌 적응·귀농 성공사례 등 다양한 현장견학 진행

군산시가 최근 실시한 2016년 하반기 수도권 귀농학교가 교육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수도권에 거주하는 귀농귀촌 희망자 30명을 대상으로 2016년 하반기 군산시 수도권 귀농학교를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적응의 기회와 희망을 부여하고, 각종 정보의 체계적 전달과 귀농 성공사례 등 다양한 현장견학으로 진행했다.

특히 3일간 진행된 귀농학교에서는 근대역사박물관 새만금 등을 방문하며 농촌 현장견학과 더불어 군산시의 주요관광지를 홍보함으로써 군산시 관광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또한 타 시군과의 차별화된 군산시의 귀농귀촌 정책으로 1억 원 한도 내 용자지원, 농기계·비거림하우스 우선 선정, 농지 임차료 지원 등 다양



한 귀농귀촌 정책들을 소개했다.

귀농학교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이번 귀농학교를 통해 귀농 선배들의 농가를 견학하고 농촌생활을 체험하며 귀농에 대한 계획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었다"며 "예비 귀촌도시로 군산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정원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50만 국제관광도시, 어린이행복도시로 군산 방문을 환영한다"며 "희망과 꿈을 가지고 제2의 인생을 군산에서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원광대, 호남·제주권 장기현장실습 실무추진위원회 개최

원광대학교는 제1회 호남·제주권 장기현장실습 실무추진위원회를 지난 25일 교내 학생지원관에서 개최했다.

호남·제주권 장기현장실습을 시행하는 대학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인 이날 위원회는 2016 장기현장실습 선도대학의 사업계획 공유를 목적으로 마련했다.

호남·제주권 장기현장실습 선도대학인 원광대 고경숙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을 비롯해 현장실습 대학 보직교수 및 실무자들이 참석한 위원회에서는 장기현장실습 선도대학의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권역 확산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지난해 장기현장실습 우수 시범대학 사례발표에 이어 2016년 장기현장실습 선도대학의 중점 사업계획이 공표되기도 했다.



원광대 LINC사업단 송문규 단장은

"호남·제주권 장기현장실습의 우수 사례와 올해 사업에 대한 논의의 장이 원광대에서 이루어져 영광"이라며, "호남·제주권의 장기현장실습 시행대학들이 머리를 맞대 최근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사회수요 맞춤형 학과와 장기현장실습의 연계 방안을 마련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실무추진위원회가 개최된 원광대는 2015년 장기현장실습 우수 시범대학으로 권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고, 2년 연속 장기현장실습 선도대학으로 선정돼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익산=장왕원기자



원광대병원, 환자·보호자·의료진들 대상 클래식 힐링 콘서트 열려

파워 있고 카리스마 넘친 연주로 클래식 음악계를 놀라게 하는 유명 피아니스트 임현정의 피아노 선율이 원광대학교병원 로비에 울려 퍼졌다.

지난 28일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우영) 외래관 1층 로비에서는 감미로운 클래식 향기가 무르익은 가을의 정취를 타고 입원 환우들과 보호자, 내원객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번 공연은 장기입원으로 인해 문화 예술 활동들이 어려운 입원 환우들과 보호자, 고객 및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음악, 뮤지컬, 연극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 힐링 치유를 목적으로 열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로 전국 대학병원들의 협조를 얻어 열리게 된 '2016 의료시설 순회 신나는 예술여행'이 이번에 원광대학교병원을 찾은 것이다.

원광대병원을 찾은 임현정 피아니스트는 12살에 프랑스 유학길에 올라 프랑스 국립 루앙 콘서트 바토리를, 15살 최연소로 졸업, 파리 국립 고등음악원에서 앙리 바르타를 사한 천재 피아니스트로 음악계에 명성이 자자하다.

이날 임현정의 클래식 공연에서는 낭만주의 거장 슈만의 "어린이 정경", "나비"를 비롯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제11번 가장조 K.331에 이어 아리랑 판타지(임정)가 대미를 장식했다.

병원 내에서 연주회 같은 클래식 공연을 관람한 입원 환우 김모(48, 익산시 영등동 거주)씨는 "지방 소도시다 문화 예술 공연은 많이 있고 싶었는데 뜻밖에도 입원 중에 수준 높은 피아노 연주를 접할 수 있어 이쁜 몸과 마음이 완치되는 기분이다"라고 기쁜 마음을 표했다.

/익산=장왕원기자



원광대학교, '원광 플러스 페스티벌' 개최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는 28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학생회관 및 학생지원관, 수덕호 주변 등 캠퍼스 곳곳에서 2016원광 플러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지난해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원광 플러스 페스티벌은 대학 축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고 사업단 및 부서별로 진행되는 각종 학생지원 프로그램의 집중화를 통한 효과 극대화를 목적으로 학사지원과, 프라임사업단, 학생과 취업지원과, LINC사업단, 특성화사업단, 창업지원단 주관 아래 총 26개 프로그램이 각각 진행된다.

특히 학사부와 학위부를 갖추고 김도중 총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예비 졸업식은 평소 2월 졸업식 대부분이 수상자 중심으로 열리고 추운 겨울날 열리는 관계로 야외 사진촬영이

어려움에 따라 수덕호와 학생회관 앞에 포토존을 만들어 예비졸업식 기념 촬영을 진행한다.

김도중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플러스 페스티벌은 가을의 아름다운 캠퍼스를 배경으로 학사모를 쓰고 기념촬영을 하는 예비 졸업식과 더불어 우리 대학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체험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기간"이라며, "우리 대학은 창업 중심대학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페스티벌은 28일 오전 학생지원관 앞 포토존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후 4시 30분 페스티벌 오프닝 행사와 사업단에서 추진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우수한 성적을 올린 학생들에 대한 시상식에 이어 총장과 함께 하는 졸업사진 촬영이 이루어졌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 드림스타트, 아동 독감 예방접종 실시

군산시 드림스타트가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꿈썩마!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을 오는 3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실시한다.

접종 대상은 취약계층 아동 100명이다. 이번 예방접종은 동절기에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환경기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함에 따라 군산의료원(접종비 63% 후원)과 연계를 통해 마련했다.

드림스타트는 서비스의 중복을 막기 위해 의료취약계층 무료 독감예방접종 대상자는 군산시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접종을 안내해 우선 실시하도록 하고, 개인 사정이나 감기 등으로 접종을 하지 못한 아동을 대상으로 독

감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특히 생애 첫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생후 6개월 이상의 소아에게는 1차 접종을 하고 한달 후 2차 접종을 실시해 독감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자정형 어린이행복과장은 "저소득가정의 의료비 부담경감과 호흡기와 면역력이 약한 아동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3~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겨울철 질병 예방을 위한 동병해치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

/군산=문정곤기자